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가르쳐 주세요

(제1회)

■ 鄭 東 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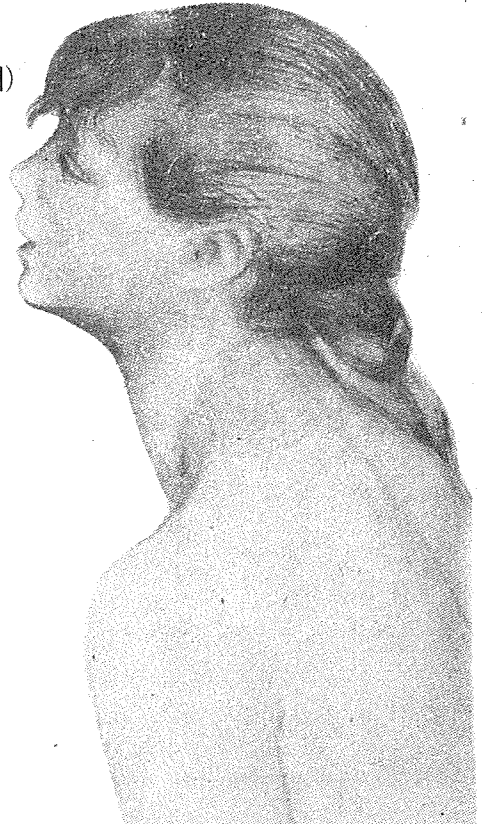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편집자 註〉

이번호부터 연재되는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의사인 鄭東哲박사가 집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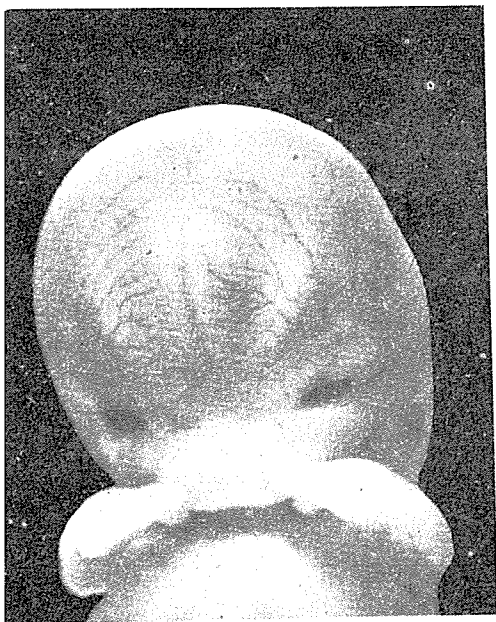
성적 인간

성교육은 출산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임신과 함께 자녀에 대한 성교육이 부모의 마음속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자궁속의 태아의 생태가 밝혀짐에 따라 그들 인생이 출산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과 둘째 성교육은 인간교육의 의미를 철저하게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자궁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의 태아는 어머니(임부)의 행동과 마음의 태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임신중의 음식, 수면, 운동, 스트레스 또는 질병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들은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이다. 술, 담배, 약은 물론 각종 공해로 인한 부작용도 상식에 속해 있으리만큼 잘 알려진 현상이다. 옛부터 중히 여겨왔던 태교가 다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식을 낳아 「사람」답게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므로 성교육이 인간교육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면 임신과 더불어 성교육이 시작된다면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문은 성교육과 인간교육이 어째서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적 인간(性의人間)의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야 하겠다.

필자는 최근 두 권의 책(가르쳐주세요, 1982, 사방사, 성과 성교육, 1983, 사방사)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지만 그 간략한 요점은 대체로 이렇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사람」이란 말을 쓰기전에 남자로서의 사람 또는 여자로서의 사람이란 것을 전제로 하게된다. 바로 여자(또는 남자)로서의 인간을 성적 인간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마치 애로틱한 어떤 매력적 인간을 연상하기 쉬운 이 용어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더욱 성적 인간의 정말 중요한 개념은 인간속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라는 한사람 사람들이 모여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내포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격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도하다. 바로 이와 같은 성적인간을 위한 교육이 성교육이므로 인간교육과 전연 같은 뜻이라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여기엔 따라서 자신이 그와 같은 성숙한 성적 인간이 스스로 하지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임신과 더불어 시작되는 성교육속엔 바로 이렇듯 장차의 어머니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교육은 그러므로 아이들이 가르쳐 달라는 난처한 여러가지 질문들에 기발한 대답을 준비하는 기교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냐는 것에 그 호기심을 풀어주는 것 만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솔직히 성교육은 모든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오히려 말 이전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어른들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 자체가 더 중요하다.

어떤 태도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미 지적한대로 어머니 자신이 성숙한 성적인간이 되면 좋다. 성적인간이 되기 위해선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되 과장되거나 주관에 휩싸여 아집을 갖지 않으면 된다. 어머니 이기 이전에 여자로서와 인간됨에 정체감(正體感)을 갖고 자랑됨을 마음속에 지녀야하며 그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한 남편의 아내, 아버지의 딸 형제의 오누이, 주부, 직장인, 동창, 소꿉동무, 며느리, ... 등등 수많은 사회적(가정도 사회) 역할에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통한 자신감에서 싹튼다. 이른바 정신 성적주체성(精神性的主体性)이 있는 성적인간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통한 연구결과 성적주체성은 이미 생후 18개월에 심어진다. 해부학적으로 여자와 남자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후 3년이 되면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남자가 되려는 정신 성적 정체감을 갖기에 이른다. 말할것도 없이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각기 자신의 성적 동일성(同一性)을 얼마나 성숙하게 준비하고 있느냐와 직결된다.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아 성장하는 진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와같은 자세가 중한것은 사실이나 어머니가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율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한다.

1. 성과 생식에 관한 생물학적 사실들.

2.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

3. 동물과 인간의 성적행위상의 차이들.

4.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

5. 자위에 관한 사실들.

6. 성병에 관한 사실들

7. 종건 나쁘건 성교로 인해 일어날수 있는 결과들.

8.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성의 위치.

9. 동성애에 관한 것들.

10. 혼선 사교생활에 있어서의 성의 위치.

11. 솔직하고 분명한 언어를 통해 한 개인이 경험한 느낌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것들.

12. 사랑에 대한것.

물론 위 열두가지 사항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 어머니가 일관성있는 가치체계가 정보를 갖고 있기란 그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갖고 있어야 할 이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반드시 소상하게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어머니 자신의 성숙한 성적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그것이 곧 자녀의 정신 성적 주체성을 키워 건강한 성적 인

간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주어야 할 것인지 이제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음 차례에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계속〉

29P에서 계속



라 하겠다.

기생충감염상태는 그나라의 문화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고 있으며 국민보건의 지표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할때 우리 몸에서 하루속히 기생충을 몰아내야 하겠다.

앞으로 닥아올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의식한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상태를 의식한다면 우선 개개인의 구충제를 복용해야 될것이다.

필자= (中央醫大 寄生虫學
助教授·獸醫博)